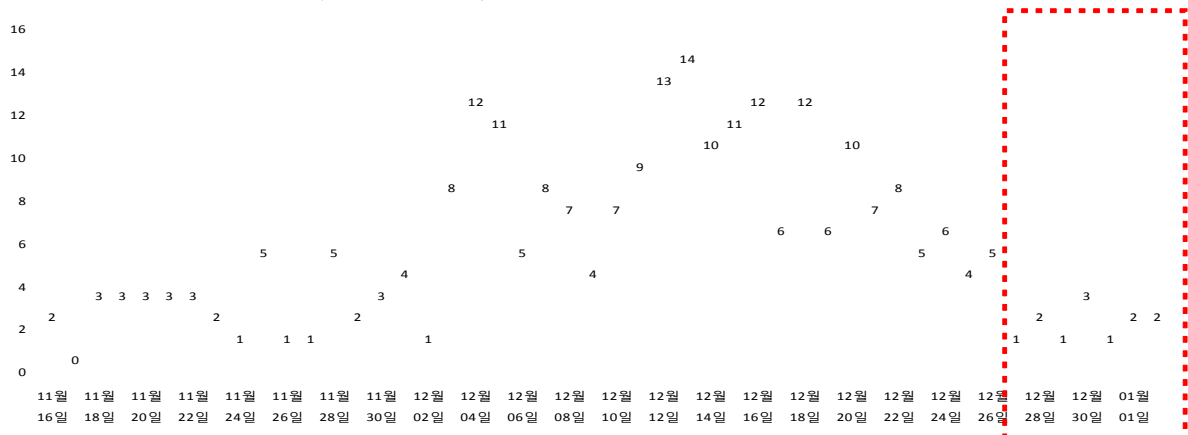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7. 1. 3(화)	
		작 성 문 의	경제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과장 송태복 / 사무관 서수철 (Tel. 044-200-2232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긴장감을 갖고 범정부적 총력 대응으로 AI 완전 종식에 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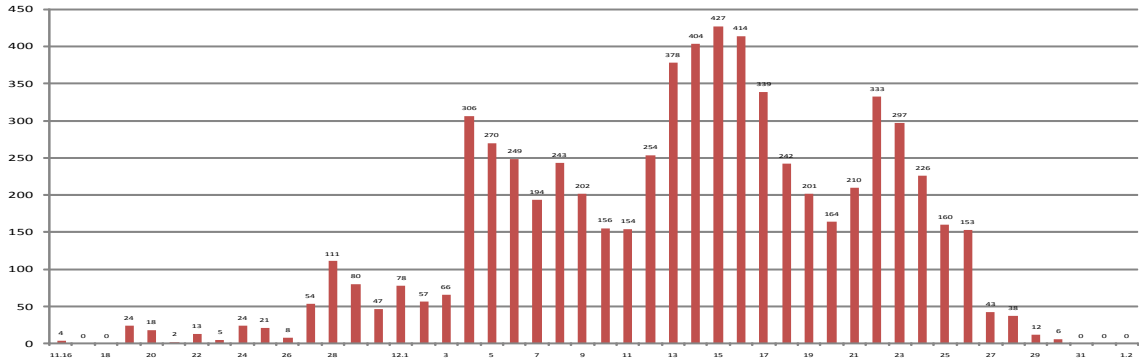
- 사소한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 AI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을 당부

- 황교안 권한대행은 1월 3일(화) 아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「민관합동 조류 인플루엔자(AI) 일일점검회의」에 참석하였다.
 - 황 권한대행은 AI 발생추세 진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범정부적 대응을 추진해온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방역상황을 진단한 결과,
 -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체계 정립, 선제적 방역활동 강화, 제기된 문제들의 당일 조치 등으로 AI 의심신고 건수가 하루에 1~2건으로 줄어드는 등 AI 확산 추세가 거의 잡혀가고 있고,
 - 좀 더 면밀히 대응을 한다면 AI 추가 발생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.

※ AI 의심신고 건수(11.16~1.2)



※ 살처분 잔여 마릿수(11.16~1.2)



- 이와 함께 지난 21일 동안 진행해 온 「AI 일일점검회의」가 중앙과 지방,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현장문제를 매일 점검하고 즉시 해결하는 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.
- 하지만, AI가 아직 종식된 것은 아니며,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철새에 의한 AI 유입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발생 할 수 있는 상황임을 환기시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.
- 황교안 권한대행은 빠른 시일 내에 AI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예찰 활동의 강화, 방역수칙의 준수, 철저한 점검과 개선조치의 즉각 시행 등 선제적이고 촘촘한 방역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과 함께,
 -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바로 검사에 들어가야 하며, 24시간 내 즉각 살처분 완료, 매몰지 잔존물 신속 처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.
 - 특히, 방역현장에서는 사소한 준수사항 하나라도 세심하게 살펴서 AI 방역에 작은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고 점검해 줄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다.

-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인근 농가로 전파되지 않게 차단하고, 철새 이동 경로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즉각적인 방역이 가능토록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.

- 아울러 연말연시 휴일도 잊고 방역활동에 수고해 주신 관계자 격려와 함께 AI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유지하고 방역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